김 정 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걸작이다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걸작이다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91(2002)년 8월 15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결속공연을 정말 잘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아리랑》공연을 세번 보았는데 볼수록 멋있고 볼 때마다 대단한 걸작이라는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이하며 창조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예술작품이 나온것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일입니다.

우리의 창작가들과 출연자들은 주체조선의 국위를 만방에 떨쳐갈 숭고한 애국의 일념을 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1년 남짓한 기간에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을 생동하게 반영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문화예술작품을 훌륭하게 창작완성하였으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를 안고 련속 4개월동안이나 공연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

나는 창작가, 출연자들이 세운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줍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주체문화예술의 대성공작으로서 후세에 길이 전할 귀중한 국보이며 세계적인 대걸작입니다. 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창작공연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20세기 문예부흥의 총화작이라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본보기작품이며 이 두 작품은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혁명적대작입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놓고보아도 위대한 시대가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요 《아리랑》을 종자로 하여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문제를 우리 혁명의 력사와 결부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가 비껴있는 비애와 눈물의 《아리랑》이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적긍지와 랑만, 혁명적기상이 넘치는 선군《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으로 승화되였습니다. 우리의 창작가들과 출연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 희망찬 래일에 대하여 사상예술적으로 가장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창조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사상주제적내용을 생동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구성에서 빈틈이 없고 풍부한 형상으로 설명이 없이도 할 이야기를 다하였습니다. 《아리랑》공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장하게 끌고가면서도 큰 감동을 주는 만점짜리 공연입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나무랄데없이 성공한 작품이며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서장에서는 배경에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아리랑》이라는 제명이 새겨지게 하고 바닥에 금빛의상을 한 무용대렬이 펼쳐지게 하였는데

형상을 숭엄하면서도 우아하게 잘하였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장면에서 만수대예술단 녀성성악배우가 노래 《눈물젖은 두만강》을 우리 식으로 잘 불렀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작에서 노래 《오직 한마음》, 《눈물젖은 두만강》, 《우리는 하나》를 비롯한 명곡들을 잘 쓸데 대하여 말하였는데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감정정서에 맞는 좋은 노래들을 우리 식으로 잘 형상하였습니다.

《조선의 별》장면에서 새별이 빛을 뿌리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봉화대에 불을 지피게 한 장면을 아주 멋있게 형상하였습니다.

《내 조국》장면에서 《사향가》가 울려나올 때 배경대에 대형환등으로 백두밀림이 흘러가게 하였는데 형상을 특색있게 하였습니다. 노래가 《빛나는 조국》으로 바뀌면서 배경대에 공화국기발이 새겨지는 순간 바닥에 있는 무용수들이 우아한 춤동작으로 공화국기발을 형상한 장면도 희한합니다.

《우리의 총대》장면에서는 수령님의 건군업적을 비약시키는 수법으로 함축하여 형상하였는데

착상을 잘하였습니다.

《활짝 웃어라》장면에 출연한 어린이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민족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앞에 나와 줄넘기를 하는 어린이들이 아주 잘합니다. 줄넘기를 재치있게 하는 어린이들이 신의주본부유치원 어린이들이라는데 볼수록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출연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고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천지개벽》장면도 잘 형상하였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째이고 집단체조로도 보기 좋습니다. 집단체조는 이렇게 되여야 합니다.

《흥하는 내 나라》장면에서 배경대에 레이자조명기로 집짐승들을 형상한것도 특색이 있습니다. 마감에 농악무를 판이 크게 펼치고 소상모와 중상모, 대상모를 결합하여 상모춤을 멋들어지게 추는데 마음에 듭니다. 최근에 상모춤을 장려할데 대하

여 강조하였는데 작품에 잘 반영하였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의 체조장면에서 5층탑을 쌓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체조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예배우처럼 정말 잘합니다. 이 장면 집단체조가 아주 볼만 합니다.

《인민의 군대》장면에 출연하는 군인들이 인민군대의 위력이 폭넓게 안겨오게 잘 형상하였습니다. 격술도 녀성군인들이 하는것이 더 보기 좋으며 배경대에 락하산이 펼쳐지면서 녀성군인들이 락하산을 타고내리는 장면도 좋습니다. 당창건 55돐때에 형상한 인민군대장면보다 폭이 넓습니다.

《이선남폭포》장면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출연자들이 거의다 녀성근로청년들과 대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 못지 않게 춤을 잘 춥니다.

《행복의 락원》장면에 나오는 교예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하였던것보다 새로운 맛이 나게 잘 형상하였습니다.

《오직 한마음》장면이 멋이 있습니다. 노래《오직 한마음》을 정서적으로 잘 안겨오게, 예술성이 풍부하게 형상하였습니다. 이 장면에 레이자조

명과 전광장식을 집중적으로 하니 희한합니다.

《통일아리랑》장면을 훌륭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조국통일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이 장면에 《아리랑》노래를 다시 넣고 새로 창작된 노래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마감처리를 한것이 마음에 듭니다. 창작가들이 착상을 잘하였습니다.

종장 《강성부흥아리랑》장면도 잘 형상하였습니다. 종장이 대단히 황홀합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전반적으로 모든 장, 경장면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래일의 지향을 잘 반영하고있으며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도록 손색없이 되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과 우리 혁명의 력사가 집약되여있습니다. 《아리랑》공연의 여러 장, 경들을 이번에 새롭게 창조하였는데 창작가, 출연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집단체조형식과 예술공연형식을 다 잘 살리면서 조화롭게 결합시켜 인류문화예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대성공작입니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체육과 예술를 배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집단체조의 성격을 충분히 살리고 예술공연의 특성도 잘 살리면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하나로 조화롭게 결합시킨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단체조를 예술화하지 말라는것은 집단체조도 아니고 예술공연도 아닌것으로 되게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결합한 작품은 《아리랑》처럼 만들어야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다같이 자기 특성을 살릴수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것이 바로 이렇게 하라는것입니다. 힘있고 기백이 넘치는 집단체조와 아름답고 우아하고 황홀한 예술공연이 하나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아리랑》공연은 관중들에게 전례없는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결합시키지 않고 순수 집단체조나 예술공연만으로는 오늘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리랑》공연을 보고 체육과 예술을 결합시킨데 대하여 크게 감탄하고있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창작가, 출연자들은 체육과

예술을 배합한 작품창작에서 당의 요구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수단과 형상수법들을 도입하여 새 세기의 맛이 나게 창작한 기념비적걸작입니다.

이번에 창조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작품의 내용이 좋고 규모가 방대할뿐아니라 의상과 배경대를 비롯한 모든것이 새롭고 화려하며 힘이 있고 정서가 있게 잘되였습니다. 특히 배경대가 대형화, 상징화, 률동화되여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조직성을 한층더 높여주었으며 최신과학기술인 레이자조명과 특대형영사화면을 비롯한 새로운 형상수단들을 착상도입하여 작품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작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작품창작에서 레이자와 전광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적극 리용하는 문제를 우리 식으로 훌륭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과 규률성, 문화성의 발

현이며 일심단결의 상징입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참가한 10만명의 출연자들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군대도 아닌 10만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로동청년들이 하나의 대본에 따라 하나의 흐름, 하나의 률동을 창조할수 있은 비결은 그들이 지닌 높은 혁명의식과 단결력,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참가한 창작가, 예술인들과 근로청년, 학생청소년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 공연을 하는것을 보니 우리 예술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단결력이 있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아주 강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술인들과 젊은 세대들속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지만 우리 예술인들과 청소년들은 혁명적으로 믿음직하게 교양육성되고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과 청소년학생들만 놓고보아도 우리 예술인대오가 혁명적전투대오로 준비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적인 새 세대로 자라나고있다는것을 느

끼게 되며 작품창조과정이 곧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교양육성하는 과정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무엇보다 기쁜것은 재능있는 출연자들이 거의나 근로청년들과 학생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로하는 청년들과 학생청소년들이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모든 장면들을 높은 수준에서 손색없이 형상하는것을 보니 그들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이번 대공연출연자들의 대부분이 평양과 지방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로동청년들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청소년들이라는것은 그들의 재능이 전문가들 못지 않으며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일반문화수준이 매우 높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나면 누구나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해지며 힘이 솟고 열정에 넘치게 됩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전교양적힘은 그 어떤 형태의 문화예술작품이나 몇천몇만부의 강연제강으로도 당할수없이 위력합니다. 참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

랑》은 우리 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리랑》공연을 평양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뿐아니라 인민군대의 비행사들과 최전연초소군인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초소에서 복무하고있는 군인들 그리고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광범히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아리랑》공연을 6월말까지 하기로 되여있었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요구가 계속 제기되여 공연기일을 연장하였으며 《아리랑》렬차를 편성하여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의 관람자들이 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리랑》공연을 400여만명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 해외동포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았는데 모든 관람자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은 커다란 감화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조국통일과 강

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귀한 창조물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민족의 자랑스러운 국보로 귀중히 간직하고 그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의 주체문화예술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